

# 책임행정 실종...광주시체육회장 공백사태 장기화 우려

### 회장 당선무효 불복 항소 결정...2023년까지 대항체제 이어질 듯 난맥상 보인 선거행정 개선 대신 명분쌓기·시간벌기식 소송 지적

광주시체육회가 자초한 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원의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재판 일정상 체육회장 공백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2023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민선 2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부회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명분쌓기, 시간벌기식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법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지난 7월 16일 법원에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광주시체육회,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고는 이상동 체육회장이지만 "대한 체육회가 정한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 핵심 쟁점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1심 판결에서는 182명 선거인단 가운데 60명 선거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는 110표를 획득, 22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두차례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회장측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경과할 수도 있다.

체육회장 최장기 공백 사태도 예견된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에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 체육회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재판 일정상 사실상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불가능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회장 임기(3년)인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규정상 회장 임기를 1년 남겨두기 전까지만(내년 2월)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결국,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면 소송의 실익은 없고 체육회 행정의 시비만 가려지는 셈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체육회는 책임과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시체육회와 선거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논란이 된 선거규정을 사실상 손질하고 않고 선거를 치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우진-임종훈(왼쪽)이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마지막날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스웨덴 조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우진-임종훈,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메달'

### 한국 남자복식 사상 최고 성적

장우진(26·국군체육부대)과 임종훈(24·KGC 인삼공사)이 역대 한국 선수 첫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금메달 획득에 이쉽게 실패했다.

장우진-임종훈 조(14위)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마지막 날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크리스티안 카를손-마티아스 팔크 조(31위·스웨덴)에게 1-3(8-11 13-15 13-11 10-12)으로 졌다.

홍공과 일본의 강자를 물리치고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에 오른 장우진-임종훈 조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은메달만으로도 최고 성적이다. 한국 탁구는 세계선수권 남자복식에서 동메달만 통산 8차

레 따냈다.

또 장우진과 임종훈 모두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생애 첫 메달을 거머쥐었다.

앞서 8강과 4강에서 중국 조를 연파한 카를손-팔크 조는 중국의 남자복식 4연패를 저지하고 스웨덴에 30년만의 남자복식 금메달까지 안겼다.

장우진-임종훈 조는 서른 살 동갑인 카를손-팔크 조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파워에 고전했다.

특히 191cm, 88kg 거구인 팔크의 빠른 공격이 매서웠다. 1게임에 내준 장우진-임종훈 조는 2게임 1-5로 뒤지다가 상대 구질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는지 격차를 좁혀나갔다.

4차례 듀스 끝에 웃은 건 또 카를손-팔크 조였다. 장우진의 마지막 공격이 네트에 걸리고 테이블 밖으로 향하면서 게임점수 0-2가 됐다.

장우진-임종훈 조는 3게임 중반 주도권을 가져

왔다. 1, 2게임에 조금씩 빚나간 장우진의 포핸드 탑스핀의 정확도가 올라갔다. 장우진의 오른손, 임종훈의 왼손 조합이 빛을 발하며 두 차례 듀스 끝에 3게임에 따냈다.

하지만, 카를손-팔크 조는 끝까지 단단했다.

카를손-팔크 조는 살아난 장우진-임종훈 조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10-10에서 장우진과 임종훈의 공격이 잇따라 테이블을 빚나가면서 카를손-팔크 조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남녀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도전을 마쳤다.

한국 탁구는 남자복식에서만 은메달을 따냈을 뿐, 다른 종목에서 모두 입상에 실패했다.

여자탁구 새 에이스로 불리는 신유빈(대한항공)이 대회 초반 오른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일찍 낙마한 게 아쉬웠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PGA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포효하는 타이거 우즈. /연합뉴스

## 우즈 이 모습 더 이상 못 보나

### "이제 풀타임 못 될 듯...사고 직후 다리 절단할 뻔"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타이거 우즈(미국)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단할 만큼 부상이 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언젠가 필드에 복귀하겠지만 더는 풀타임을 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즈는 지난 30일(한국시간) 골프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 "허리를 다친 뒤에도 에베레스트산을 여러 번 올랐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은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수 없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쳐 지금까지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이후 언론과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리가 낫는다면 골프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우즈는 그러나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즈는 대안으로 선택적 대회 출전을 언급했다.

"필드에 복귀해도 풀타임은 못 된다"는 우즈는 "벤 호건이 그랬듯이 일년에 몇몇 대회를 골라 출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됐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게 내 현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그는 다리를 잘라낼 뻔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오른쪽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났던 그는 "(다리

절단 가능성이) 50대50이었다. 다리 하나를 병원에서 나올 뻔했다"면서 "병원에서는 내 손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여자친구) 에리카한테 아무거나 던져주라고 부탁했다"고 돌아봤다.

석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골프채를 다시 손에 쥐었다는 우즈는 휠체어에 이어 목발로 옮겨가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에는 연습장에서 스윙하는 영상을 공개해 곧 필드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간도 못 왔다"는 우즈는 "다리 근육과 신경을 더 발달시켜야 한다"고 자신의 상태를 밝혔다.

끔찍한 사고와 힘겨운 재활에는 아버지한테 배운 강인한 정신력이 발휘됐다고 우즈는 밝혔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아버지의 가르침이 유용했다. 아무리 긴 고통이라도 하나씩 잘라서 견디라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9개월 동안은 지옥이지만, 두세 시간은 견딜 수 있다. 두세 시간 견디는 걸 반복하면 몇 달이 된다. 그게 쌓여서 이만큼 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즈는 "지금도 체육관에 들어서면 엔도르핀이 솟는다. 내가 수많은 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쌌다. 자동차 사고 전에도 나는 열 번의 수술을 받았다"면서 "내내심을 갖고 도를 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 2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 3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유체이탈자
-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 5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둔
- 6관 유체이탈자
- 9관 유체이탈자, 라스트 나잇 인 쇼호, 이터널스, 베네데타
- 7관 씨네커플 라스트 나잇 인 쇼호, 태일미, 장르만 로맨스
- 8관 씨네커플 이터널스, 메이드 인 이태리,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사바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 시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특별기획공연  
**바리톤 김기훈 독창회**  
일시 : 2021.12.13.(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